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 226-0180

광주 11/23℃ 목포 12/22℃ 여수 15/21℃

단기 4343년 (음력 9월 11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804호 1판 2010년 10월 18일 월요일

영암 F1 D-4

## 경주장 가는 길 점검 해 보니

**안내소 어디 있나**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불과 4일 앞두고 있지만 무안공항에는 대회를 알리는 홍보부스 하나 없어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라는 F1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무안공항을 나서면 고속도로와 국도 갈림길이 나오지만 F1경주장 방향을 알리는 안내판이 없어 어디로 가야할지 헷갈리게 된다.

/무안=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무안공항선 물어볼 곳 하나도 없고 고속도로선 이정표 없어 오락가락

### 조직위 "안내입간판 140개 설치 차질없게 할 것"

지난 16일 오전 무안공항. 국내 최초의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막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항 주변 분위기는 황량하기만 했다.

입구에 F1 행사를 알리는 5m 높이의 꽃탑만 서 있을 뿐, 공항 안 어디에도 세계 3대 스포츠의 하나가 영암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는 팸플릿이나 플래카드 하나 보이지 않았다.

당장 20일부터 F1 관계자와 드라이버를 실은 17편의 전세기와 전용기가 지구촌 곳곳에서 무안공항으로 날아든다. 그러나 그들에게 코리아 그랑프리의 첫 이미지를 심어줄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 여행을 위해 수속장에 대기중인 여행객에게 이 공항으로 전 세계 F1 드라이버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지만 "잘 모르겠다"는 대답만 되돌아 왔다. 공항 관계자는 "F1 조직위에서 아직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았다"고만 했다.

무안공항을 나와 영암 F1 경주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안내 이정표 역시 부족했다. 고속도로에는 안내 입간판 하나 없었다.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50㎞를 40여분 간 달려 목포 시내에 들어서자 비로소 F1 경주장 가는 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가로 70㎝, 세로 30㎝의 이정표는 크기가 작아 자칫 그냥 지나치기 십상이었다. 이정표는 있지만 안내 기능은 떨어졌다.

대회기간 관람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환승 주차장을 안내할 이정표도 마찬가지였다.

전남도 F1 조직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목포 북항과 대불산단, 대불대 등지에 환승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았다.

영산강하구언을 넘어 대불대 방면으로 7분 정도 달리자 F1 경주장 입구를 알리는 이정표와 꽃탑이 서 있었다. 이곳이 주 진입로다.

경주장으로 진입하는 새로 포장된 도로는 비교적 깨끗했으나 여기저기 공사흔적이 남아 있었다. 도로에 벼를 말리는 주민의 모습이 간간이 눈에 띄어 안전 대책도 시급해 보였다.

전남도 F1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홍보물과 길 안내 표지판의 경우 사전 설치가 힘들어 대회 기간에 임박해 설치할 계획"이라며 "18일부터 140여개의 안내 입간판을 곳곳에 설치하고, 진입로 주변 미비한 부분은 행사 직전까지 보완하는 등 차질없이 행사준비를 마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18면〉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초청합니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2010년도 정기총회
▪일시 : 2010. 10. 21(목) 오후 6:30
▪장소 : 조선대학교 서석홀 4층
▪문의 : 228-0197~8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신 흥 수

### "국내 유일 '그레이드 A' 달리고 싶다"

# 영암 F1 경주장 예약 폭주

### 대회 개최 문의 잇따라 벌써부터 인기 상종가

국제자동차연맹(FIA)의 최종 검수를 통과해 국내 최초로 F1 대회를 치르는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이 벌써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내 유일의 '그레이드 A' 자동차경주장에서 레이싱을 즐기기를 갈망하는 국내 레이서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각종 모터스포츠대회 예약도 잇따르고 있다.

전남도 F1 지원본부는 17일 "레이싱 대회를 위해 경주장을 사용하겠다는 문의가 잇따르면서 12월까지 예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경주가 열릴 만한 시설이 경기 용인시 스피드웨이와 강원 태백시 태백모터파크 2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F1 대회를 치르는 세계적 경주장이 완공되자 경기를 치르려는 대회 관계자들의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우선, 다음달 6일부터 7일까지 경주대회와 비경주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는 '2010 모터스포츠 그랜드 페스티벌'이 열린다. 경주대회는 모두 70여대의 경주차가 GT, 제너시스 쿠페, 투어링, 수입원메이커 4가지 클래스로 나눠 순위를 정한다. 비경주 분야에서는 아마추어 레이서들이 130대의 차량을 몰고 질주하게 된다.

현대자동차도 아마추어 레이서들을 중심으로 '현대스피드페스티벌'을 다음달 13~14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기 전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레이스 대회로 평가받던 'CJ 헬로넷 슈퍼레이스 대회'도 영암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대회는 2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고의 대회로 배기량 및 차량 규정에 따라 4가지 종목(헬로 TV·제너시스 쿠페·Super2000·넥센N9000)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F3 대회도 11월26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일정이 확정적이다.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규정을 따르며, F1, GP2와 함께 포뮬러 자동차경주의 주축을 이루는 종목이다. 경주차(2000cc급 4기통 엔진) 성능을 제한해 제조기술 보다는 드라이버의 능력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F1 대회 진출을 위한 사전 경기로 인식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전남도는 아울러 경기장 사후 활용방안의 하나로 국내외 자동차 회사들과 신차 출시에 따른 대규모 이벤트를 영암 서킷에서 치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영암 서킷은 국내 자동차경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10년간 호남 어음부도율 전국평균 2배

〈0.16%〉 〈0.08%〉

### 이용섭의원 국감 자료

최근 10년 동안 호남권 기업의 어음부도율이 전국 평균의 2배로 전국 최고를 기록해 경영 여건이 전국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17일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8월까지 전국 어음부도율을 분석한 결과, 호남권의 어음부도율이 연평균 0.1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0.15%, 충청권 0.09%, 수도권 0.07% 순으로 수도권만 전국 평균인 0.08% 미만이었다.

최근 3년 동안 5억원 이상 어음부도율에서도 호남권은 전국 평균인 0.023%의 2배에 가까운 0.043%에 달해 호남권의 큰 기업들이 수도권의 기업보다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했다. 같은 기간 동안 영남기업의 5억 이상 부도율도 0.046%에 달했다.

특히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호남지역 기업의 5억원 이상 어음부도율은 0.064%로 전국 평균(0.027%)의 2.5배 가까이 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영남기업의 부도율은 호남의 3분이 1 수준이자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0.024%에 불과해 현 정부 들어 기업여건이 좋아지고 있음을 반증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년 동안 어음부도율을 보면 특히 호남에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 수 있다"며 "지방경제가 살리려면 수도권으로 자금이 유출되지 않고 자금 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자족도를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